

고훈 시대의 와카사·쓰루가 지역

개요

고훈 시대(약 250~552년)에는 야마토 조정이 현재의 나라현과 오사카부에서 권력을 잡고, 멀리 떨어진 지역을 지배하는 씨족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했습니다. 이 시대의 이름은 천황이나 한 가문의 지도자, 기타 유력자 등 지배계급의 인물을 위해 건설된 대규모 무덤(고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분은 무덤으로서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정치적 지위를 나타내는 기능도 했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보통 돌로 된 매장실에 안치했고, 그것을 덮는 흙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고인과 함께 무기와 마구, 농기구와 기타 도구, 장식품, 제기 등의 부장품을 같이 넣었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에서 만들어진 전방후원분(前方後円墳)이라고 불리는 열쇠구멍 모양의 고분은 야마토 조정의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와카사와 쓰루가 지역에도 많은 고분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에 걸쳐 조성된 고분의 발굴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 지역이 야마토 조정과 한반도 고대 왕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시사되었습니다.

상세 정보

고분문화와 야마토 조정과의 관계

대부분의 고분은 열쇠구멍 모양의 전방후원분, 방분을 조합한 전방후방분, 원형의 원분 또는 사각형 방분이었습니다. 고분의 형태와 크기는 야마토 조정에 의해 확립된 정치적, 사회적 계층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와카사와 쓰루가 지역에서는 약 20기의 전방후원분과 몇 개의 대규모 원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야마토 조정과 친족인 자 혹은 강력한 유대관계를 가진 유력한 씨족 지도자들의 무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와카사에서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에 걸쳐 만들어진 고분은 규슈에서 처음 출현한 구멍을 옆으로 파는 동굴식 무덤인 횡혈식 석실을 채용했다는 것과 한반도에서 가져온 부장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와카사의 씨족이 규슈 북부와 한반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야마토 조정과 한반도 고대 왕조와의 외교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와카사 지역의 최대 고분

와카사와 쓰루가 지역의 특히 큰 고분 대부분은 현재의 오바마시와 와카사초 사이에 있는 기타가와 유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와카사의 씨족 지도자를 위한 7개의 가장 큰 고분은 전방후원분으로 전체 길이가 63m에서 100m에 이릅니다. 가장 큰 고분은 5세기 초에 만들어진 조노즈카 고분입니다. 이 지역에서 강력한 씨족 지도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고분은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지름 약 50m의 원형분인 마루야마즈카 고분입니다. 그러나 마루야마즈카 고분은 1953년 홍수 때 복구용 흙으로 이용되어 지금은 그 흔적도 없이 '마루야마 고분 터'로만 존재합니다. 이 고분들의 대부분은 2층 또는 3층의

봉분으로 되어 있고, 하니와라고 불리는 토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또, 봉분 경사면은 돌로 덮여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야마토 조정의 지배자나 씨족의 고분양식을 채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장품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와카사의 고분에서도 부장품이 출토되었는데, 거울과 청동장식품, 장식품, 칼과 기타 무기, 마구, 다양한 도구, 토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와카사 중심부에 있는 5세기 후반 씨족 지도자의 무덤인 니시즈카 고분에서는 금귀걸이, 청동거울, 금동제 띠 장식, 은방울 등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물건들(특히 띠 장식)은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서, 니시즈카 고분에 묻힌 인물이 야마토 조정과 한반도 왕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스에키(須惠器)

4세기 초, 일본에서는 하지키(土師器)라고 불리는 질그릇인 적갈색 토기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키는 야요이 시대(기원전 400년~기원 300년)처럼 손으로 성형하여 700~800°C에서 소성했습니다. 그러나 5세기 전반에는 한반도에서 점토제품을 물레로 성형하여 언덕 경사면에 만들어진 '터널' 가마에서 1000°C로 굽는 새로운 도자기 제조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에키라고 불리는 보다 내구성이 높고 침투성이 낮은 회색 도자기가 탄생했습니다. 5세기 중엽에는 고분 외부에서 제기로 스에키가 사용되게 되었고, 6세기 초에는 부장품으로 대량 스에키가 많이 사용되게 되면서 하지키 사용은 감소했습니다.

전시품

전시되어 있는 대량의 부장품은 와카사의 미하마 지역에서 6세기 초에 현지 지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34m의 전방후원분인 시시즈카 고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독, 장식이 있는 키 큰 향아리, 향아리를 얹는 받침대, 다리 달린 접시와 그 뚜껑, 대롱 삽입 구멍이 있는 술을 따르는 향아리 그리고 스에키 중에서도 특히 귀한 형태인 뿔 모양의 음료용기 등 많은 종류의 스에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시즈카 고분용 스에키를 생산하던 가마 유적이 인근 산중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밖의 부장품으로는 장도, 녹각자루칼, 쇠화살촉 등과 같은 무기, 마구 일부, 구부러진 낫, 도끼, 집게 등과 같은 철제 도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장식품은 매장실에서 발견된 둥근 모양의 구슬과 대롱 모양의 관옥, 쉼표 모양의 곡옥(장식구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목걸이들의 일부였습니다. 큰 원통 모양의 하니와는 5세기 전반에 건설된 와카사 씨족 지도자들의 무덤 시로야마 고분에서 출토된 파편들로 복원한 것입니다.

고분의 단면 모형은 5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전방후원분 무코야마 고분 1호입니다. 발굴조사에 의해 규슈 북부에서 사용되었던 옛 매장양식과 동일한 횡혈식 석실이 발견되었는데, 이로써 와카사가 혼슈에서 최초로 이 석실구조를 채택한 지역 중 하나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고분의 앞쪽(사각형) 부분에는 무기가 들어있는 직사각형 구멍이 있어 석실에 매장된 인물이 유명한 전사였음을 시사합니다. 부장품 중에는 한반도에서 보내온 금귀걸이가 있었는데, 이는 와카사와 고대 조선의 왕국 사이에는 이미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